

패션디자인을 위한 전통복식의 활용현황에 관한 연구*

금 기 숙

홍익대학교 섬유미술학과 부교수

A Study on the Adaptation of the Traditional Costume for Fashion Design

Key-Sook, Geum

Associate Prof., Dept. of Textile Arts, Hongik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aesthetic application of traditional Korean dress(Items) to the contemporary fashion design.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Each traditional dresses have revealed their aesthetic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periods or time. (2) The dresses of certain period, figures and items had been limited in use in fashion design today. (3) The most favoured dresses adapted in fashion design were Chosun costume and female top items were the most preferred in use. (4) The colors applied to the fashion design were also limited. The bright and strong color groups were the most popular colors among fashion designers for their works. White which stands for the image of Korean and their dresses were also preferred in use.

Therefore experts in various arena of fashion business have to keep in mind following problems: (1) They have to study traditional dresses to enhance their historic knowledges and appreciate their aesthetic beauties. (2) Various kinds of dresses from many periods, items should be tried to adapt in fashion design by the designers. (3) Various male attires also should be adapted in fashion design. (4) Various methodologies are recommended to apply in fashion design. (5) Fashion moods should be examined to make the korean fashion design rich.

The plastic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dresses could be interpreted as a tunnel to show the esprit of Korean and the aesthetic of Korean dresses through the works of fashion design for the international fashion markets or societies.

Key word : 패션디자인, 전통 복식, 복식 품목, 한국적 디자인, 디자인 영감
fashion design, traditional costume, fashion item, fashion design adapted Korean aesthetics,
design inspiration

* 이 논문은 1996년도 홍익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하여 연구 되었음.

I. 서 론

한 국가나 민족이 오랫동안 착용해 온 전통 복식은 패션 디자인 분야에서 에스닉(ethnic), 포클로어(folklore),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 등의 용어로 중요한 패션 경향의 한 부분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패션 디자인의 주제로도 애용되고 있다. 전통 복식은 일반적으로 한 민족의 정서를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독특한 조형미를 갖고 있으므로, 새로움을 추구하는 창작과정에서 디자인의 영감으로 활용할 가치가 높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나라 패션분야에서도 전통한복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한국패션의 국제화 과정에서도 의미 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한복의 조형적인 독창성은 많은 디자이너들에 의해 자신들의 컬렉션에서 '한국적 패션 디자인'¹⁾이라는 내용으로 진지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나아가 국제 패션계에도 한국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한 표현 방법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여기에 맞추어 이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도 점점 증가하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다.

그럼에도 패션 디자인에 활용된 한복의 구체적인 작업에 대한 연구와 검토는 아직도 미흡하며, 패션 디자인 작업도 특정 시대 복식이나 특정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전통복이 전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인물들이 착용하였던 모든 의류라는 점이 고려되지 않은 채, 특정 시대의 잘 알려진 복식만이 반복적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으로도 보인다. 이러한 현실은 전통복식의 착용 범위를 한정시키고, 디자인의 내용도 진부해 보이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새로운 관점에서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한복의 품목을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전통복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다양한 전통복식들이 한국적 패션디자인 작업에 참신한 영감으로 활

용되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한 패션 디자인의 사례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실제 패션디자인 작업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수집된 사례들은 활용 복식의 시대, 의복의 품목, 의복의 요소, 장신구 및 디테일 등을 디자인의 분석 기준으로 설정하여 전통복식의 활용여부를 파악하고자 한다. 따라서 특정 시대 복식의 활용여부에 대한 결과는 복식에 등장하는 모든 시대 복식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의복의 품목을 활용한 디자인, 복식의 요소가 활용된 디자인, 장신구나 부속품 등이 활용된 디자인 등의 연구 결과도 한국적인 패션디자인의 실태를 파악하는 물론 현행 디자인 작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향후 디자인 방향의 모색에서 지침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된 패션 디자인들은 디자이너 컬렉션과 패션잡지, 연구 논문 등을 중심으로 조사되었으며, 1980년대에서 1998년까지 약 20년 동안의 자료들이 고찰되었다. 수집된 디자인은 300여 사례였으며, 본 연구를 위하여 실제 분석에 활용된 디자인은 258디자인이었다.

II. 전통복식 활용 디자인 분석

1. 특정 시대복 활용 디자인

특정 시대복이 패션 디자인의 주제나 요소로 활용되었을 때, 두 가지 관점의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어느 시대 복식이 가장 많이 활용되었고 어느 시대 복식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며, 둘째는 패션디자인에서 전통복식의 활용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시기는 언제였나 하는 점이다.

1) 한국적 패션디자인은 본 연구에서 한국적인 이미지를 패션 디자인의 주제로 활용한 패션 디자인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자 한다. 한국적인 이미지는 가시적인 특징을 통하여 표현되기도 하며, 패션컨셉이나 패션무드 등의 인상으로 감지는 디자인도 포함되는 용어로 활용하고자 한다.

다. 후자의 경우는 패션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알 수 있는 것으로 80년대 후반기와 90년대 전반기라 할 수 있다. 이 때는 전반적으로 사회 각 분야에서 국제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았었고, 국내에 유치한 국제대회나 행사 또한 증가했던 시기였다. 국제적인 환경에 노출되면서 우리의 것에 대한 관심과 함께 한국인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통적으로 추구한 한국적인 특성의 발견은 패션디자인 분야에서도 자연스럽게 반영되었다. 특히 서울 컬렉션²⁾과 같은 정기 컬렉션이 개최된 것은 패션 디자인 분야에 매우 의미 깊은 행사로, 패션 디자이너들 스스로 자신의 작품세계는 물론 한국적인 디자인을 실험하는 계기로 활용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디자이너들의 국제무대로의 진출도 매우 의미가 있다. 한국 패션 디자이너들은 국제사회에서 차별화되는 디자인을 추구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적인 주제를 디자인 테마로 선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어느 시대의 역사복식이 사용되었는가 하는 첫 번째 문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역사복식을 활용한 디자인의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인 분석이 가능한 디자인은 258개였다. 이 중에서 활용복식의 시대를 알 수 없는 디자인은 62%인 반면, 시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48%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는 패션 디자인에서 역사복식을 모방하는 작업과 함께 한국적인 분위기나 정서를 표현하고자 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³⁾ 즉, 80년대 후반의 디자인은 원형

을 모방한 디자인이 많았던 반면, 90년대에는 한국적인 정서를 표출한 자연스러운 디자인을 추구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인다.⁴⁾

시대를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 사례들은 대부분 조선시대의 복식에 편중되어 있음이 주목된다(사진 1). 즉 조선 시대 복식의 활용비는 94%에 이르렀고, 상고시대가 4%이며 통일신라와 고려시대는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고 할 정도이다.(표 1)

이러한 결과는 조선복식이 현대한복의 기본형을 제시한 원형이며, 패션 디자이너들도 조선복식을 가장 한국적인 복식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한 역사복식 중 가장 많은 유물이 현존해 있어서 현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시대 복식문화에 대해서는 소홀하게 되는 단점으로도 지적될 수 있다. 한국 복식문화는 조선복식에 국한되지 않고 상고시대부터 현재에 이르는 오랜 역사에 등장하는 다양하고 풍부한 아름다움을 지닌 모든 복식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패션 디자인에 가장 격게 활용된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이다. 이 시대는 현존하는 복식유물이 희박할 뿐만아니라 기록도 미흡하여 몇 가지 안되는史的인 흔적으로 당시대의 복식문화를 엿볼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한계는 현대인들에게 당시대 복식을 접하기 어렵게 하는 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다. 따라서 1997년에 발견된 요선철릭과 같은 복식 유물은 복식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패션디자인 분야에도 새로운 양식의 복식을 접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게하는 매우 소중한 의미를 갖는다.⁵⁾

2) 서울패션디자이너협회(Seoul Fashion Artist Association)

3) <표 1> 역사복식의 활용 사례비

시 대	상고시대	통일신라	고려시대	조선시대	불 명	계
사 례	4	1	1	92	160	258
백분율	1.19	0.38	0.38	36.04	62.01	100%

4) 금기숙(1992), "韓國 傳統 服飾美의 現代의 活用", [服飾], 서울: 한국복식학회, p.32.

5) 權瑛淑, 李珠英, 張海賢(1997), "海印寺 金銅毘盧遮那佛 腹藏服飾과 高麗後期 衣服의 特性", 聖寶學術叢書 1, 사단법인 성보문화재단연구원, pp.199-188.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고구려 시대를 디자인의 영감으로 활용한 패션 디자인은 상고 시대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⁶⁾ 고구려 고분 벽화를 직물에 프린트하여 새로운 감각의 패션소재를 창출한 작업은 소재개발의 측면뿐만이 아니라 한국적인 이미지를 문화 상품화하였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은 에스닉이나 포크로어 등과 같은 패션트렌드에도 부응하여 현대적인 감각의 패션 디자인으로 재창출되므로써 그 가치가 인정된다(사진 2).



〈사진 1〉 조선복식을 활용한 디자인
이신우, 1991⁷⁾(좌)

〈사진 2〉 고구려 벽화를 활용한 디자인
이신우, 1995⁸⁾(우)

2. 의복 품목 활용 디자인

패션 디자인에 활용된 품목은 남성복보다는 여성복이 많이 활용되었다. 그 구체적인 사례들은 치마, 저고리(색동저고리), 바지, 단속곳, 속바지, 속치마, 두루마기, 당의, 철력, 활옷, 배내저고리, 배자, 조끼, 마고자, 땡기, 주머니(각낭), 색상자, 아

얌, 버선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여러 디자이너들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활용되어 온 특징을 보인다. 이것은 이들 품목들이 현대 디자이너들에게 잘 알려진 의복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같은 품목을 여러 디자이너들이 공통적으로 활용한다하더라도 각 디자이너의 패션 감각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전통복식은 오랜 기간을 두고 형성된 양식이 지속적으로 계승되는 특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식을 현대 패션디자인에 활용할 경우, 원형의 특징을 완전히 바꾸면서도 원형의 이미지를 지닌 새로운 양식의 디자인을 재창출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므로 전통복식을 활용한 많은 디자인들은 원형을 고수하면서, 깃모양을 단순화한다거나, 바지 부리의 여밈 방법에 변화를 주는 등으로 세부의 변화를 주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원형을 충실히 따르므로 기본형의 독창성은 그대로 유지되나, 작가의 조형 의지는 미약하게 반영되는 것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전통복식을 패션 디자인의 주제로 활용하기 시작하던 때에는 원형을 모방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역사적으로는 원형의 모방이 처음 시작된 것은 개화기의 신여성들이 애용하였던 백색 저고리와 짧은 검정색 통치마를 들 수 있다. 특히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던 여학교 학생들이나 전도 부인을 중심으로 한복의 유형이 변한 것이 그 시작이었다. 즉 치마에는 허리띠에 어깨 끈이 부착되었고, 저고리가 길어지는 대신 치마는 짧아지기 시작했다. 여성들의 외출이 잦아지면서 두루마기의 착용도 늘어났다⁹⁾. 그러나 이 때의 한복은 그 구성이나 기본 형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착용자의 활동성을 고려하여

6) 국립현대미술관은 1995년 “아, 고구려!”전을 개최한 바 있다. 고구려의 벽화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행사는 사진으로 재현되었던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에 감증을 느끼고 있던 대중들의 공감대를 유도하여 성공을 거두며 전국 순회전으로 이어졌다. 이 때 의상부분에 초대되어 패션 소품을 선보였던 디자이너 이신우는 그 해 파리 컬렉션에서 고구려 고분 벽화를 프린트한 소재를 활용한 디자인을 제안하여 호평을 받았다.

7) 월간[멋], 1991, 12, 서울:동아일보사, p.15.

8) 94/95 AW SF&A Collection

나타난 변화로 보이며, 한복을 활용하여 다른 디자인으로 재창출하고자 하는 의지는 보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고찰 대상에서는 제외시키고자 한다.

패션디자인 작업에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한 시도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라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한국인들이 세계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기 시작한 시기였다. 국제 행사에 참가하는 한국 대표들은 그들의 복장을 통하여 한복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자 하였다. 또한 한국에서 개최되거나 주관하는 국제회의가 증가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에 따라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복식 분야에서도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나게 되었다. 하나는 전통한복분야에서 나타난 한복의 생활화 및 현대화이며, 다른 하나는 패션디자인 분야에서 보인 양장의 한국화 및 한국적인 아름다움의 수용이었다. 그러므로 전자는 생활한복 내지 현대한복의 생활화에 기여하였고, 후자는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주제로 하는 패션디자인을 출현시키는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였다⁹⁾. 그러므로 생활한복 또한 본 연구의 고찰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전통복식의 품목들은 저고리, 치마, 바지, 두루마기, 절터, 동방, 버선, 당의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조선시대 의복의 양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시대의 복식은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점이 재확인된다.

이 가운데 저고리는 가장 대표적인 한국의 옷으로 패션 디자인에서도 많은 디자이너에 의하여 가장 많이 활용된 품목의 하나이다. 저고리의 구조적

인 특징은 현대 패션디자인에서는 선이나 디테일의 활용으로 새로운 양식의 디자인을 출현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저고리 옷고름의 여밈에 의한 비대칭성은 한국적인 디자인의 인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치마와 함께 한복의 이미지를 표현한 디자인<사진 3>은 원형의 모방이라는 차원에서 한복의 개별고도 우아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나타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원형을 모방하는 작업은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모방이라는 이미지를 불식시키거나 디자인 자체의 완성도를 얻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럼에도 원형에 충실한 디자인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향수를 지닌 고객이나 새로운 양식에 신선함을 느끼는 외국 소비자들에게 호응을 얻기도 한다. 이 디자인에서는 저고리와 치마, 속치마의 형태를 약간씩 변형한 디자인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내면서 착용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점이 시선을 끌고 있다.

치마는 흥미롭게도 그 자체만을 활용하여 재현된 경우가 많아 주목된다. 구성은 매우 간단하지만, 착용자가 어떻게 착용하는가에 따라 여러 모양을 보여주는 것은 치마만이 가진 조형적인 장점이다. 한복에서 속치마로 착용되는 어깨가 있는 치마는 미드립 스커트나 점퍼스커트의 개념으로 활용되어, 여러 디자이너에 의하여 실용성이 강조된 패션품목으로 제안되기도 하였다.¹¹⁾

허리와 치마 부분으로 구성된 긴치마는 이브닝 드레스로 활용되는 등 그 활용 사례 역시 다양하다. 어깨를 드러낸 배어 솔더의 이브닝 드레스<사진 4>는 한복 치마를 원형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치마 허리 부분에만 자수로 장식문양이 시문되어 있다. 우아한 이 드레스의 동양적인 분위기는 패션경향인

9) 유수경(1988), "韓國女性洋裝의 變遷에 관한 研究",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p.153.

10) 김기숙(1992), p.32.

11) 설윤형은 1990 S/S Collection에 원색 바탕에 화려한 꽃문양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전통 속치마를 활용한 원피스를 제안하였고, 이영희도 1993년에 조각보 문양을 활용하여 한복의 속치마와 같은 유형의 점퍼 스커트를 제안한 바 있다.

오리엔탈리즘에 적합한 사례로 평가받을만 하다. 여러 길이의 치마를 겹쳐서 속치마로 착용하였던 무지기 치마를 현대화한 디자인(사진 11)은 '內衣의 外衣化'현상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우선은 그 독특한 형태로 주목을 끌고 있다.



〈사진 3〉 조선시대 한복을 활용한 디자인
홍미화, 1995¹²⁾(좌)

〈사진 4〉 치마를 활용한 디자인
이영희, 1996¹³⁾(우)

朝鮮時代 中期 치마로 추정되는 다양한 유형의 치마도 현대 패션디자인에 활용할 수 있는 조형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다. 치마의 앞은 짧고 뒷부분이 뒤로 끌리며 서양의 버슬 스타일(bustle style)을 연상시키는 형상은 전통 한복치마의 조형세계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상과 실루엣의 하나는 치마의 가운데 폭의 윗부분에 가로 방향으로 넓은 주름을 잡은 후 옆의 폭과 봉제하여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 나타나는 형태, 선, 바느질 기법, 스펀단의 부착여부 등은 현대적인 패션디자인을 위한 독특한 모티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¹⁴⁾. 이러한 치마가 현대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러한 치마에 대한 전문가나 일반인들의 인식부족에 연유하기도 할 것으로 생

각된다.¹⁵⁾

한국적인 아름다움은 남성복에서도 많이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매한 인품을 표출했던 남성복, 특히 선비들의 차림새는 현대 디자이너들의 관심을 끌기에 훌륭한 대상이다. 풍성한 포의 가슴부위를 細條帶로 묶어주었던 남성 한복은 A/W Collection에 여러 번 제안된 바 있다(사진 5). 회색 코트에 가는 가죽끈을 사용하여 가슴부위를 묶어 여미도록 한 것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포를 착용하고 있는 모습과 그 이미지가 유사하다. 손을 덮는 긴 소매, 깃과 동정을 연상시키는 긴 검정색 모피의 선장식, 바닥 가까이 오는 길이의 긴 코트 등은 과거의 이미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한 좋은 사례이다.

남성 포의 하나인 帖褌도 현대적인 해석이 시도된 바 있는 품목의 하나이다. 치마부분에 봉제된 섬세한 주름이 특징인 帖褌는 현대 여성복에서 새로운 감각의 디자인 주제로 활용되고 있다(사진6). 94/95 A/W에 제안되었던 회색 코트는 帖褌의 원형에서 유연한 실루엣과 주름 장식 등을 채용한 대신 좁은 소매, 테일러드 칼라, 커다란 아웃 포켓, 허리에서 여민 끈 장식 등으로 현대적인 감각을 나타내고 있다. 흐르는 실루엣은 머리의 모자에서 연결되어 내려진 검정색 긴 끈 장식으로 반복되면서 의복 전체에 여유있는 흐름을 반복하고 있다. 회색은 중간색 명도를 띠고 있어서 명암에 의해 코트의 구성선이 구체적으로 강조되어 디자인의 포인트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부츠, 메이크 업 등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현대적인 감각을 보이는 무채색의 대비가 활용되고 있다.

12) [ELLE], 1995, 3

13) [VOGUE], 1996, 8

14) 박성실(1996), "朝鮮朝 치마 再考-16세기 홀트복식을 중심으로-", [服飾], 第三十三號, 서울: 한국복식학회, pp.295-306.

15) [COSTUME EXHIBITION](1998), The 17th International Costume Association Congress, pp.20-1.



<사진 5> 포를 활용한 디자인
진태욱, 1993¹⁶⁾(좌)

<사진 6> 첩리를 활용한 디자인
홍미화, 1995¹⁷⁾(우)

전통 복식 중 남성용 바지도 패션디자인에 활용되고 있다<사진 7>. 바지 원형의 풍성한 형태는 둥글고 부드러운 곡선으로 표현되고 있다. 소재색을 그대로 사용한 바지는 넓은 허리부분, 깊은 주름, 허리띠 등으로 원형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다. 상의에 착용한 흑색과 회색의 줄무늬 소재는 전통적인 바지의 이미지와 대비되는 현대적인 이미지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바지는 풍성한 형태의 의해 나타나는 둥그스름한 실루엣이 활용되고 있으며, 바지를 구성하는 면과 선의 만남의 조화를 활용할 수 있다. 바지에 행전을 했을 때에는 승마용 조드퍼즈(jodhpurs)와 유사한 형태감을 보이므로 흥미를 끌 수 있다.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많은 디자이너들은 그들의 컬렉션에 특정의 의상들만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통복식의 하나로 존재했었던 수많은 의복의 종류 내지 품목들은 패션디자인에서 현대화 작업을 시도했거나 활용해 본 사례가 없음이 확인된다.

이상의 고찰은 傳統男女복식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들로, 이들은 몇 가지의 특징을 보인다. 즉, 전체적인 디자인 사례들을 종합해 볼 때 전통 여성복이 품목의 숫자나 반복 응용된 경우에 있어서 전통남성복 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며, 또한, 현대 패션디자인에 있어서도 주로 여성복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남성복에서도 한국적인 디자인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아직은 극히 적은 사례가 조심스럽게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3. 복식 조형요소 활용 디자인

복식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조형요소는 전통복식에서도 복식의 미적특징을 이루는 동시에 특정 문화를 표현하는 기호나 특정 집단을 암시하는 상징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전통복식을 이루는 조형요소들은 디자이너에 의하여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전통복식의 조형 요소에는 線을 포함한 형태 외에도 색채, 소재, 문양, 장신구 및 디테일 등 세부사항의 특성들이 미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¹⁸⁾ 구체적으로 한국전통복식에서 관찰되는 풍성함이나 단순, 비대칭, 울등성 등은 형태를 통하여 관찰되는 미적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단순함은 현대 한국적 디자인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각되는 특징인데, 이것은 전통복에서 장식을 배제한 무장식성이나 현실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하지 않는 무심한 마음이 현대적으로 해석된 결과라 할 수 있다<사진 1>.

비대칭성 또한 한국적인 디자인에서 자주 보인다. 패션디자인에 보이는 비대칭성은 한복 저고리의 여밈에 나타난 비대칭성의 이미지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복에서 여밈의 방법은 성별이나 복식의 종류에 구애됨이 없이 대부분 옷고

16) [Elle]. 별책부록, 1993.6, p.13.

17) [ELLE], 199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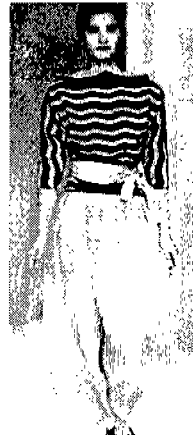
18) 琴基淑(1994). [朝鮮服飾美術]. 서울: 열화당, p.188.

름을 사용하여 착용자의 오른쪽에서 이루어지므로 비대칭을 보인다. 이러한 비대칭성이 전통복에서 균형감각을 유지하며 오랜 세월을 통해 지속적으로 애용되어 온 것은 착용자들의 높은 수준의 조형감각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 평가된다. 한국적이 패션디자이너에서도 이러한 비대칭성은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애용되고 있다(사진 5,6). 벨트의 착용방법에 의하여 비대칭성을 표출하기도 한다(사진 7).

움동성은 균형, 비례, 리듬감 등의 조형적 특징들이 좌우대칭적이거나 가변적인 형태로 대부분, 혹은 일부분에 풍성한 볼륨감을 주어 나타날 수 있다.¹⁹⁾ 흔들리는 일부분에 의하여 나타나는 경우는 얇은 소재를 사용하여 착용자가 움직일 때마다 의상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옷고름이나 끈을 부착하여 착용자나 주변의 움직임에 의하여 흔들리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 두 경우는 모두 착용자의 동작이나 환경의 상황에 따라 실루엣이 변하는 가변성을 특징으로 가지며, 획일적이지 않고 다양한 형태미를 구현할 수 있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사진 3,5,6).

한국 전통복식의 중요한 미적 특징 중 하나에는 곡선의 미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 반면, 한국적인 패션디자이너에서는 곡선보다 오히려 직선이 압도적으로 활용된 것이 주목된다(표2).²⁰⁾ 단순함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기교가 없는 직선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을 것이며, 또한 실제로 입체구성을 한 의상에서도 한복구성의 특징인 평면구성의 이미지를 나타내고자 직선을 애용한 것이 아닌가 추정되

기도 한다. 이것은 결국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직접적으로 복식의 원형을 모방하는 방법을 지양하고, 그 대신 미적 정서를 표출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출현된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 즉, 동그레 깎이나 배래선, 도련선 등에 사용된 곡선을 그대로 현대에 재현하는 것은 더 이상 새롭게 인식되거나 신선한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디자이너나 소비자가 인식하고 모방 차원의 곡선 사용은 자제한 것으로 보인다(사진 8).



〈사진 7〉 바지를 활용한 디자인
김동순, 1990²¹⁾(좌)



〈사진 8〉 직선과 곡선을 활용한 디자인
설윤형, 1983²²⁾(우)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한 패션디자이너에 활용된 색채 또한 의상의 조형미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형요소이다. 사용된 색채는 비교적 원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그 다음은 백색, 흑색, 중간색, 기타의 순이다(표 3).²³⁾ 전통복식에서는 白色이 한

19) 김인경(1998),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服飾], 第三十八號, 서울: 한국복식학회, p.242.

20) <표 2> 활용된 선의 종류

종류	직선	곡선	기타	합계
사례수	180	60	33	273
백분율	66	22	12	100

23) <표 3> 디자인에 활용된 색채

색명	원색	백색	검정색	중간색	색동	기타	합계
사례수	77	62	59	47	2	18	265
백분율	29	23	22	18	1	7	100

21) 월간[멋], 1990, 1, 별책부록, 서울: 동아일보사.

22) 월간[멋], 1983, 10

국민이 선호했던 채로 여겨져 왔으나, 실제로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색채는 원색이 많았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여기에서 원색들은 브라이트 톤(bright tone)보다는 비비드 톤(vivid tone)이 사용되고 있어서 한국의 전통적인 이미지인 단아함이나 담백한 이미지보다는 모던하며 경쾌한 이미지로 바꾸고 있어 한국적인 이미지를 誤導하는 경우도 있다.

백색은 白衣 民族이라는 표현과 같이 한국적인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데 자주 사용된 색채이다. 화려한 색채를 배제한 백색의 순수함은 전통 한복의 단순한 미적 특징과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백색은 단독으로 혹은 흑색과 대비하여 사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강한 흑백의 대비를 보이게 되는데, 이 흑백의 대비는 현대적인 이미지와 함께 흑발의 한국인에게 잘 어울리는 색채대비이기도 하다.

이 외에도 중간색이나 파스텔색, 색동, 기타 등의 색채 등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자연을 모방한 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색채군은 면, 마, 견 등의 섬유에 자연염색을 하여 얻을 수 있는 색으로 한국적인 디자인에 많이 사용되었다. 중간색은 덜톤(dull tone)의 위치에 있는 색들이 많으며, 이러한 색채들은 파리 컬렉션에 참가했던 디자인너들이 한국적인 정서를 지닌 색으로 자주 제시하는 색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자칫 개성없이 단지 부드러운 이미지만 부각시키기 쉬운 함정이 있기도 하다. 여기에 짙고 강한 원색이나 보색을 보조색 혹은 강조색으로 대비시킬 때 한국 전통 색채대비에서

볼 수 있는 단정하고 담백한 색채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다.

한국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한 패션디자인에서는 복식조형 요소의 하나인 문양도 애용되고 있는데, 문양이 사용된 디자인(60%)은 문양이 없는 디자인(40%) 보다 수차적으로 많아서 흥미롭다.<표 4>²⁴⁾ 그러나 유문의 경우에도 시각적으로 두드러지는 문양은 별로 없고 잔잔한 문양이나 소재의 지문으로 활용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단순하고 담백한 분위기를 표출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분양을 활용하기 보다는 시각적인 주목을 덜 받는 잔잔한 문양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문양의 모티프들은 전통문양이 압도적으로 많이 활용되었고(95%), 비전통문양은 몇 가지(5%)가 미미하게 나타나 있을 뿐이다<표5>.²⁵⁾ 이것은 한국적인 이미지의 의상디자인에서는 의도적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을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적인 문양이 가장 많이 사용된 시기는 1990년대로 보이며, 이 시기는 오리엔탈리즘이 패션경향의 하나로 널리 확산되었던 시기였다. 해외 디자인너들이 동양적인 이국풍을 중국이나 일본 문양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추구하고 있을 때, 한국 디자인너들은 한국의 전통 또는 한국의 전통 복식미를 통하여 동양적인 분위기를 표출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용된 전통문양의 종류를 종합해 보면 幾何學的 紋樣, 花紋, 文字紋, 動物紋 등의 사용이 두드러졌으며<표 6>. 그 외에도 색동문, 일월문, 도깨비문, 人

24) <표 4> 紋樣의 有無

문양유무	有 紋	無 紋	합 계
사 례	165	102	258
백분율	60	40	100

25) <표 5> 紋樣의 전통성

종 류	전통紋	비전통문	합 계
사 례	156	9	165
백분율	95	5	100

26) <표 6> 전통문양의 종류

문 양	기하학적문	화 문	일월문자문	동물문	기 타	합 계
사 례	70	48	15	10	13	156
백분율	45%	31	10	6	8	100

物紋, 雲紋 등이 사용된 바 있다.²⁶⁾ 특히 기하학적 문양은 한국적인 전통문양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문양으로 주목되며(45%), 그 다음이 꽃문양인 화문(31%)이다. 기하학적인 구성을 가지는 문양은 시대나 유행 등의 영향을 적게 받으면서 현대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서 현대적인 패션디자인에 적합하여 애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꽃문양은 牧丹紋<사진 9>, 蓮花紋<사진 10>, 梅花紋²⁷⁾ 등이 사용되었으며, 이들은 전통 혼례복인 활옷의 자수 문양이나 조선시대 백자의 표면 문양이 활용된 것들이다. 동물문으로는 조선시대 民畵에 보이는 닭과 새, 용이나 호랑이 등이 유머러스하게 사용되기도 하였다.



<사진 9> 목단문을 활용한 디자인
진태욱, 1995(좌)
<사진 10> 연화문을 활용한 디자인
진태욱, 1997²⁸⁾(우)

문양은 의복의 표면을 명료하게 부각시키므로 강한 시각효과를 창출한다. 따라서 문양의 상대나 의상에서 문양이 배치되는 공간은 상황에 따라 관찰자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²⁹⁾

한국적인 디자인에 활용된 문양들은 프린트, 자수, 직조, 아플리케 등 여러 기법들이 활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표 7).³⁰⁾ 실크 스크린을 동원한 프린트가 문양의 표현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은 그 방법이 효과에 비하여 비교적 수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프록킹 기법이나 발포 나염기법 등도 그 기본적인 방법은 프린트 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刺繡는 문양의 표현을 자유자재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자주 활용되는데, 섬세한 동양 자수는 동양풍의 패션경향에 필수적인 요소로 애용되었다. 직조는 직물의 지문을 나타낼 때 사용되고 있는데, 대부분 잔잔한 분위기의 지문으로 표현되고 있다.

한국적인 디자인에 사용된 소재에는 면, 모, 견, 마 등 전형적인 전통 자연소재가 애용되었다(표 8).³¹⁾ 특히 견직물의 사용이 과다하게 분포된 것은 전통적으로 한국인들이 견직물에 대해 가졌던 애정과 선호하는 감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견직물은 의례복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소재로 우아한 고상한 이미지를 특징으로 한다. 봄/여름에는 노방이, 가을/겨울에는 양단이 집중적으로 사용된 것은 <표 9>³²⁾. 이 작업을 주도하는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한국적인 디자인에 대한 개념이 한쪽으로 편중

27) 진태욱, 94/95 A/W Collection

28) [ELLE], 1997.8, p.211.

29) Marilyn R. Delong(1987), [The Way we Look],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pp.80-6.

30) <표 7> 문양 표현방법

32) <표 9> 견직물의 종류

표현방법	프린트	자수	직조	아플리케	프록킹	기타	합계
사례수	43	23	23	15	2	59	165
백분율	26	14	14	9	1	36	100

종류	노방	양단	사	쉬폰	기타	합계
사례수	56	54	6	3	6	125
백분율	45	43	5	2	5	100

31) <표 8> 소재의 종류

종류	絹	毛	綿	麻	TC	비닐	기타	합계
사례수	119	42	41	32	12	8	4	258
백분율	46	16	16	12	5	3	2	100

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하며, 思考의 確立성이 다양한 시도를 저해하는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갑사, 숙고사, 쉬폰 등의 견직물은 회소한 사용 빈도수를 보였다. 실용성을 고려하여 자연소재의 사용을 자제한 경우에는 전통소재와 시각적으로 유사해 보이는 화학 합성 소재들을 사용하였다.

소재들은 그 종류보다도 소재를 다룬 표현방법에 의하여 서로 다른 표현성을 갖는 경우가 많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소재를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소재와 대비시켜 사용하는 경우, 누비나 자수 등과 같은 바느질 기법을 활용하는 것 등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새로운 표면 디자인(surface design)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들이다. 그럼에도 소재에 사용된 표현기법이 비교적 단순한 것은 디자이너들이 새로운 소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도 독특한 표현효과를 갖는 새로운 소재를 스스로 개발하기에는 역부족인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표 10>.³³⁾

조각보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된 표현기법으로 주목된다.³⁴⁾ 여러 가지 소재들을 서로 이어 붙여 제작된 기법은 기하학적 문양구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양한 색채들이 혼합되어 토속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형성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파이핑이나 깨끼 바느질은 전통 한복에서 섬세한 아름다움을 표현했던 바느질 방법이다. 현대 패션디자인에서도 이러한 봉제기법은 한국적인 이미지를 유지하면서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로 효과적이다.

다양한 바느질 기법들은 그 사용이 아직도 미흡하다. 누비, 홀치마, 트임 만들기, 의례복의 안단부 작방법, 상침질, 사뜨기, 형짚 매듭짓기 등은 아직도

활용 여지가 많은 봉제법들이다. 그 중 누비기법은 비교적 자주 활용되는 봉제법이다. 누비는 봉제과정을 암시하며, 動的인 이미지를 강하게 보여주는 공예적인 이미지가 강한 기법으로서, 구체적인 문양을 만들거나 출문양이 나타나게 하는 등의 작업을 통하여 의복에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 내는데 효과적인 바느질 기법이다. 염색도 독특한 소재를 형성하고 제작하는데 자주 활용된다. 이러한 작업들은 모두 한국적인 이미지를 높이며, 전통의 현대화 및 계승이라는 주제에 적합한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며 현상들이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전통적인 기법을 개발하여 소재의 시각적 효과의 영역을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작업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4. 장신구 및 부속품 활용 디자인

복식의 미흡한 부분을 보강하거나, 완결시키기 위하여 장신구나 의복의 부속품들이 자주 활용된다. 이러한 장신구나 부속품들은 의복에 섬세함과 정교함을 더해 줌으로써 착용자의 품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데, 실제로 역사복식의 부속품들이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장신구나 부속품으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한국적인 패션디자인에 등장했던 장신구들을 신체의 부위별로 보면, 머리에는 남성의 갓<사진 11>, 여성의 족두리, 조마위<사진 12>, 난모, 풍차, 아얌, 땡기 등이 사용된 사례가 있다. 이들은 모두 조선시대의 복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주목되는데 이러한 문제 역시 상고시대나 통일신라, 고려시대 등의 관모들은 그 구체적인 특징을 파악하기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디자이너들에게도 별로 소개되지 못

33) <표 10> 소재의 표현기법

표현기법	조각보	파이핑	깨끼	누비	주름	기타	합계
사래	27	24	23	18	12	15	119
백분율	23	20	29	15	10	13	100

34) 허동화(1988).[The Wonder Cloth: 옛 보자기],서울:한국자수박물관,pp.44-171.

했기 때문에 추정된다.

갓의 장식으로 사용되었던 纓子是 여성복 디자인에서 목걸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비녀도 펜던트의 일부로 목걸이의 한부분을 장식하는 요소로 활용된 바 있다.

동체에 착용하였던 노리개도 변형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디자인되어 활용되고 있다. 가락지도 펜던트로 목걸이로 애용되거나, 현대적인 가락지로 재현되기도 한다.

남성들이 포의 가슴부위에 사용했던 세조대와 술도 애용되는 부속품의 하나이다. 단추도 원형대로 혹은 활용하여 현대의상에 사용되고 있다. 쌍학과 연화문을 수놓은 매듭 단추도 단추 모양으로 혹은 문양 부분을 여러 모양으로 활용할 수 있다.³⁵⁾



〈사진 11〉 갓 및 무지기 치마를 활용한 디자인
이영희, 1997³⁶⁾(좌)

〈사진 12〉 조바위를 활용한 디자인
실윤형, 1994³⁷⁾(우)

신발은 발의 앞부분이 솟아오른 모양으로 표현된 것도 있는데, 이것은 한국적인 신발의 특징을 그대로 수용하여 나타내고자 한 디자인에서 발견된다. 여기에는 곡선적인 요소가 원형 신발에서와 같이 중요한 조형미로 작용하고 있다.

III. 결론 및 제언

한국 전통복식의 조형미를 현대 패션디자인에 활용한 사례들은 다양해지고 있으며, 그 활용방법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결과로 나타나는 패션디자인을 분석해본 결과, 디자인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한국복식과 그 아름다움에 대해 심도있는 이해가 미흡하다고 사료되며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첫째, 현대적으로 활용된 전통복식 및 복식미는 조선시대라는 특정시대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현대 패션디자인에 활용된 전통복식은 남성복에 비해 여성복이 주로 활용되었는데, 특히 여성복 디자인에 주로 반복적으로 활용되었다. 셋째, 전통복식은 현대 패션디자인에서 특정 품목 즉, 재킷, 코트, 원피스, 투피스 등의 상의에 집중적으로 활용되었다. 넷째, 색채, 소재, 문양, 장신구 등의 조형 요소도 특정한 부분만이 활용되고 있다. 색채는 자연색에 집중되거나 원색이 많이 활용되었다. 매우 강하고 선명한 원색들은 전통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기 보다는 현대성을 부각시키는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소재도 자연소재를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형적인 전통소재를 그대로 수용하다보니 진부하며 한정된 이미지를 탈피하지 못하는 경향도 있었다.

그러므로 전통복식미를 활용한 한국적 디자인의 유형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을 유념하여 디자인 작업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첫째, 각 시대복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는 아는 것만을 볼 수 있고, 본 것만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복식에 등장한 복식 및 목식미를 정확하게 이

35) 김영숙(편저)(1988), [韓國服飾史辭典], 서울:민文库, p.330.

36) [아름다운 우리옷], 1997, 9, p.100.

37) [아름다운 우리옷], 1994, 6, p.90.

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복의 현대화와 한국적인 디자인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전통복식을 이해하고자 하는 패션디자이너들의 노력과 한국복식미를 소개하는 학문적인 작업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다양한 시대 복식을 응용해야 한다. 각 시대의 복식은 나름대로 독특한 조형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현대 패션디자인에 활용하여 패션디자인의 다양성과 품격을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복식사에 등장했던 다양한 복식의 품목들을 활용해 보아야 한다. 성별이나 신분을 초월하여 다양한 인물들이 착용하였던 복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패션 디자인의 다양성과 품격을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넷째, 복식의 조형 요소도 체계적이면서도 여러 방향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복식의 형태, 색채, 소재, 문양, 부속품, 장신구 등은 패션 디자인에서도 필수적인 조형요소인 만큼, 각 부분에 한국적인 개념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활용방법을 응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원형의 모방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미적 특징의 활용도 자주 활용되고 있다. 미적 정서라든가 한국적인 이미지의 표현방법 등은 아직도 그다지 개발되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식의 아름다움과 이를 패션 디자인으로 해석하는 현황과 방법을 고찰하여 보았다. 한국인의 얼과 애정이 담겨있는 조형미를 패션 디자인의 영감이나 주제로 활용하여 국제시장에서 차별화될 수 있는 한국적인 디자인의 개발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작업은 한국복식미의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국제 복식문화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Marilyn R. Delong(1987),[The Way we Look],Ames:Iowa State University Press
- 權瑛淑,李珠英,張海賢(1997),“海印寺 金銅毘盧遮那佛 腹藏服飾과 高麗後期 衣服의 特性”,
- 聖賢學術叢書 1,사단법인 성보문화재연구원
- 琴基淑(1992),“韓國 傳統 服飾美의 現代의 活用”,[服飾],서울:한국복식학회
- 琴基淑(1994),[朝鮮服飾美術],서울:열화당
- 김영숙(편저)(1988),[韓國服飾史辭典],서울:민문庫
- 김인경(1998),“과리컬렉션에 나타난 한국적 패션 디자인 특성에 관한 연구”,
- [服飾],第三十八號,서울:한국복식학회
- 박성실(1996),“朝鮮朝 치마 再考-16세기 출토복식을 중심으로-”,[服飾],第三十三號,서울:한국복식학회
- 유수경(1988),“韓國女性洋裝의 變遷에 관한 研究”,이화여자대학교,박사학위청구논문
- 허동화(1988),[The Wonder Cloth: 옛 보자기], 서울:한국자수박물관,pp.44-171.
- 월간[멋],1983.10,서울:동아일보사
- 월간[멋],1990.1,별책부록,서울:동아일보사
- 월간[멋],1991.12,서울:동아일보사
- 진태옥, 94/95 A/W Collection,
- [94/95 A/W SFAA Collection],서울:도서출판이즘
- [COSTUME EXHIBITION](1998),The 17th International Costume Association Congress
- [ELLE],1995,3
- [ELLE],별책부록,1993,6
- [ELLE],별책부록,1997,8
- [VOGUE],1996,8
- [아름다운 우리옷],1997,9